

오랜만의 나들이, 봉사활동 신심 힐링(Healing)돼



봉사활동을 더욱더 열심히 해주시기 바랍니다.'란 말씀과 차내 안전운행을 축복해 주셨다. 출발 후 차내에서 이순자(테레사) 연령회장은 안전운행과 현재 병환으로 입원하여 병마와 싸우는 본당 모든 교우분들을 위해 기도를 바치고 나들이 행사 일정과 관람 장소를 소개하였다. 연령회원을 태운 관광버스는 서산 IC를 지나 태안 천리포 수목원에 도착하였다. 설립자 '푸른 눈의 한국인'故 민병갈(미국명: Carl Ferris Miller) 박사는 식물에 대하여 전문적으로 공부한 사람도 아니고 외국인이지만 40년간 평생 민둥산 박토를 일궈 타국에서 17만 평의 수목원을 만들어 우리의 눈을 즐겁게 하였다. 이어 안면도에서 우럭 매운탕에 시장기를 때우고 비린내가 풍기는 어물전과 파란 창공에 안면도 명물인 꽃게 다리 위로 갈매기 떼들이 더 머물고 가라는 유혹을 뿌리치고, 청산리대첩으로 유명한 백야 김좌진 장군의 생가가 있는

서울대교구 시흥4동 성당 노년분과 산하 연령회는 4월 27일(토) 친교와 화합을 위한 야외 나들이를 충청남도 태안반도 천리포와 안면도로 43명이 다녀왔다. 귀가 중 홍성에 있는 백야 김좌진 장군 생가를 참배하였으며, 이날 출발 전 나들이 행사의 안전을 위해 본당 주임 신부님께서 '어제까지 비가 와서 이 행사를 걱정하였는데 오늘은 약간 기온이 내려 쌀쌀 하지만 나들이에 큰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모처럼 계획한 나들이를 즐겁게 보내시고 내일부터 교우 상가 돌봄과 연도, 장례예절



홍성에 도착하여 일본군 5만 명을 소탕하고 3,300명을 죽인 독립군 장군의 흉상 앞에 옷깃을 여미고 귀가 버스에 올랐다. 몇 년 만에 나온 나들이에 흥을 돋우기 위해 관광버스 기사가 신나는 음악을 틀었으나 지난 과거처럼 버스통로에 나와 음물에 맞추어 온몸 흔들며 운동하는 사람들이 적어, 이유를 알아보니 답은 무릎과 허리가 안 좋다는 대답이 많아 역시 세월이 강물처럼 많이 흘렀다는 생각을 하는 동안 오후 8시경 본당에 도착하여 짐을 챙기니 봉사활동의 신심 힐링(Healing)으로 즐거운 하루 나들이가 되었다.

